

Korea's Pivotal Crypto Shift in 2025:

Expanding Beyond Retail Excellence

September 2025

FACTBLOCK

Korea Blockchain Week(KBW) 2025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32%의 높은 가상자산 시장 참여율과 연간 2,500조원의 거래규모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중심의 성숙한 시장 구조와 그간 축적된 인프라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경쟁 우위입니다.

올해 KBW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성장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됩니다. 제도적 기반 강화와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한국 시장은 더욱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KBW 참석자 여러분께서 한국 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폭 넓게 확인하시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뜻깊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 전 선 익

wavebridge

2025년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과거 가상자산 시장이 Web3.0의 혁신과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현재는 기존 전통금융과의 융합(Bridge)이 새로운 주류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웨이브릿지는 이러한 시장 변화의 최전선에서 기관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70만 투자자가 참여하는 한국 시장의 차별화된 리테일 중심 구조는 글로벌 표준과는 다른 차별화된 접근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 고유의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급변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환경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표 오 종 욱

Table of Contents

EXECUTIVE SUMMARY

KEY FACTOR 1: Strong Retail Foundation

국내 가상자산 리테일 시장 현황

국내 시장의 글로벌 비교 우위

KEY FACTOR 2: Strategic Capabilities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프레임워크 벤치마킹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준비도 및 역량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벤치마킹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량 진단

KEY FACTOR 3: Regulatory Clarity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 현황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규제 현황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현황

KEY CONSIDERATION: Market Entry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방안 (VASP 취득 vs. 파트너십)

비트코인 현물 ETF 참여 시 VASP 역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사업 참여 시 VASP 역할

EXECUTIVE SUMMARY

Expanding Beyond Retail Excellence

2025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테일 시장 참여율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시장 수요, 선진적인 금융상품 운용 역량과 성숙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통한 전통 금융 연계 기술 역량,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규제 역량이 동시에 갖춰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시장 혁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테일 기반 구축

국내 인구의 32%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참여율을 기록하며, 연간 2,500조원 거래규모로 기존 전통금융의 증권 거래 규모의 52% 수준에 달하는 강력한 리테일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99.9%의 개인투자자 구조는 글로벌 주요국의 기관 선행' 또는 혼합 패턴과 다른 리테일 선행 후 기관 후행 모델을 형성하였습니다.

제도권 진입 역량 확보

170조원 ETF 운용 경험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3,100조원 간편결제 생태계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력한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급 커스터디 서비스 완성형 인프라 구축과 JV 발행 모델 등 차세대 과제들이 남아있어,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시장 진입 전략 설계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규제 환경 조성

국내 VASP 27개 업체가 성숙한 서비스 생태계를 형성한 가운데, 2026년부터 법인 거래 본격 허용으로 기관 자본의 대규모 유입이 예상됩니다. 국회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GENIUS Act 및 MiCA,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고유의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대비 안전성과 편의성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 시스템 대비 저비용·실시간 정산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2025년 변화는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Web3.0 혁신과 전통금융 융합 속에서 리테일 중심의 차별화된 시장으로 도약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KEY FACTOR 1: Strong Retail Foundation

1.1 국내 가상자산 리테일 시장 현황¹

2025년 1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970만명, 투자자가 연간 2,500조원을 거래하는 대규모 리테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99.9% 개인투자자 구조와 100% 현물거래 기반으로 운영되며, 12년간 구축된 가상자산 인프라는 리테일 대상 실명계좌 시스템, 전문 서비스 생태계(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는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구조적 특징

강력한 거래량과 시장 비중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2024년 연간 거래대금 2,500조원은 국내 증권시장의 52% 수준에 해당합니다(코스피 2,675조원, 코스닥 2,100조원 대비). 이는 설립 70년 역사의 증권시장과 12년 역사의 가상자산 시장 간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거래소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거래량의 약 95%를 차지하며 소수 대형 사업자가 절대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양강 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의 하반기 일평균 거래량은 업비트가 4.6조원이며, 빗썸 2.4조원, 코인원 0.13조원 및 코빗 0.02조원입니다.

순수 현물 거래 중심 구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은 100% 현물(SPOT) 거래로 모든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및 스왑 등이 제한되어 있어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 형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현물 거래로만 달성한 2,500조원이라는 거래량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근본적 활성도가 매우 높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향후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허용된다면 현/선물 거래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

2024년 거래대금 기준 개인투자자 99.9%, 기관투자자 0.1%라는 구조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모든 거래량이 개인투자자에 의해 창출되며, 과거 정부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기관의 직접 시장 진입이 대부분 제한되어 왔습니다. 2025년 초 금융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여 단계별 법인 참여가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리테일 위주의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¹ Wavebridge, Analysi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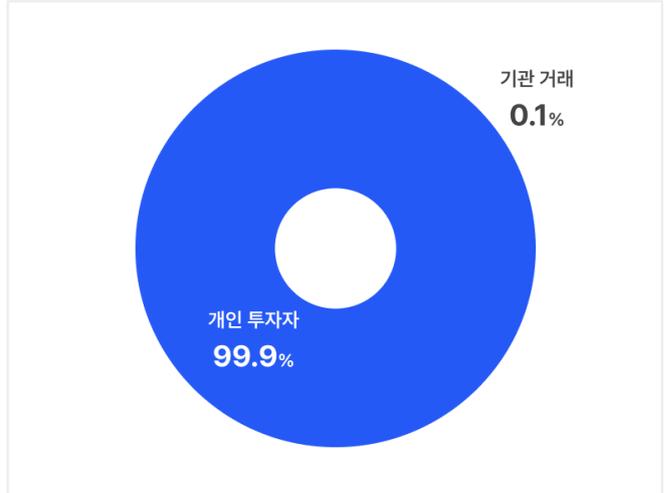
한국거래소, 주요 주식 통계: 거래종합정보, 2025

금융위원회,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4

코인베이스 투자자 비중



국내 투자자 비중



Source: Coinbase, 금융위원회, 2024

리테일 시장 성숙도 및 안정성 지표

투자자 규모와 보유 자산 특성

국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66%인 637만명이 50만원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입니다. 한편 1천만원 이상 보유자는 121만명(12%), 1억원 이상 대규모 보유자도 22만명(2.3%)에 달해 고액 투자자층도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과 거래 패턴

투자자들의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KRW) 예치금은 2024년 말 기준 10.7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6월 5.0조원 대비 1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평균 거래 수수료율은 0.13%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경쟁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은 총 96.9조원으로 상반기 74.8조원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내 신고사업자 간 이전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대상 금액은 19.4조원(20%)이며,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로의 이전은 75.9조원(78%)을 차지했습니다.

성숙한 인프라 생태계와 제도적 발전

한국의 가상자산 인프라는 12년간의 발전 과정을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도입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들의 기술적 안정성도 검증되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초당 100만 건의 거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9.9% 이상의 시스템 가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Cold-Wallet 비율 95% 이상을 유지하여 해킹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생태계도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했습니다. 국내는 가상자산 전문 법무법인 15개, 회계법인 12여 개 및 세무 서비스 업체 3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소 컴플라이언스부터 개인 세무신고까지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 인프라의 완성도는 향후 다양한 가상자산 상품 도입 또는 기관(법인 포함)의 시장 진입 시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국내 시장의 글로벌 비교 우위²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율은 32%로 미국, 싱가포르와 함께 상위권을 형성하며, 독일, 일본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요국이 '기관과 리테일 복합 성장' 발전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반대로 '리테일 중심의 시장 구조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선호도의 경우 글로벌 비트코인 중심 대비 XRP 등 알트코인 중심이며, 현물거래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 파생상품 중심의 해외 시장과 구별됩니다. 중국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이후,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거래 집중지로서 대규모 리테일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각각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발전 패턴 대비 한국 시장 특징

글로벌 참여율 스펙트럼에서의 포지셔닝

한국은 약 5,100만명 인구 중 약 970만명(32%)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며, 성인3명 중 1명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약 590만명 중 150만명(26%), 미국은 3억3,000만명 중 7,000만명(21%) 이상이 참여해 높은 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선도적 위치에, 글로벌에서는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글로벌 평균 가상자산 소유율이 6.8%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32%는 평균의 약 4.7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별 투자 선호도 패턴과의 차별화

비트코인 및 메이저 가상자산의 선호도보다 다양한 알트코인의 거래가 집중되는 패턴을 보여, 글로벌 시장의 비트코인 중심 패턴과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가상자산 선호도를 살펴보면, 미국 보유자의 약 75%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중 비트코인 중심의 투자 패턴을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메이저 코인 선호 경향을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XRP의 거래량이 타 가상자산 대비 높게 집계되지만, 거래가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보유자의 85%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 중심의 패턴을 보입니다.

규제 환경과 시장 구조의 글로벌 비교

한국은 순수 현물 거래만 허용하는 제약이 있어, 파생상품이 활발한 해외 시장과 구조적으로 차별화됩니다.

- 미국: 2017년 12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공식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개인 모두가 규제 내에서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럽연합(EU): 2018년 1월 MiFID II 공식 시행 이후 각국별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및 라이선스 체계를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해왔으며, EU 단위의 통합 규제인 MiCA 역시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가상자산 전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 일본: 2017년 4월부터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선제적 규제 접근을 보였으며, 약 30여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신규 코인 상장 규제에 의해 해외 거래소보다 거래 가능한 코인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² Wavebridge, Analysis, 2025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2025

CoinGecko, State of Crypto Markets in Asia, 2024

디스프레드 리서치, 2024 대한민국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트렌드 리포트, 2024

KCI 논문,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특징과 현황, 2022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전략적 포지션

한국은 높은 리테일 참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가상자산 경제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중국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이후 아시아 지역 거래량이 한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enley & Partners에서 발간한 Crypto Adoption Index 평가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지역 내 가상자산 수용도 기준 상위권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량뿐만 아니라 인프라, 규제 환경 및 기술 혁신 등 종합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규제 선진화를 선도하고, 싱가포르가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글로벌 허브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맞춤형 규제를 통해 대규모 리테일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내며 고유한 포지션을 구축해왔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과 제도적 기반 강화의 중요성

글로벌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향후 가상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14.5%)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투자 확대 이유로 '법제도 정비 전망'을 28.6%가 1순위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친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과세유예(20.4%) 등 다른 요인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26.3%)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이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이 단순한 투기적 열풍을 넘어 제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투자 생태계로의 진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70만 투자자가 구축한 강력한 리테일 기반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상품 다양화와 명확한 규제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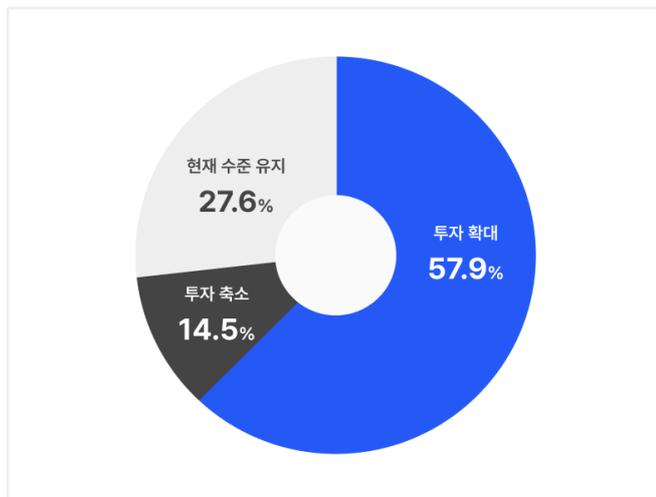
따라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차별화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 (ETF와 스테이블코인 등 제도권 상품 도입 역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환경의 명확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국민 2,2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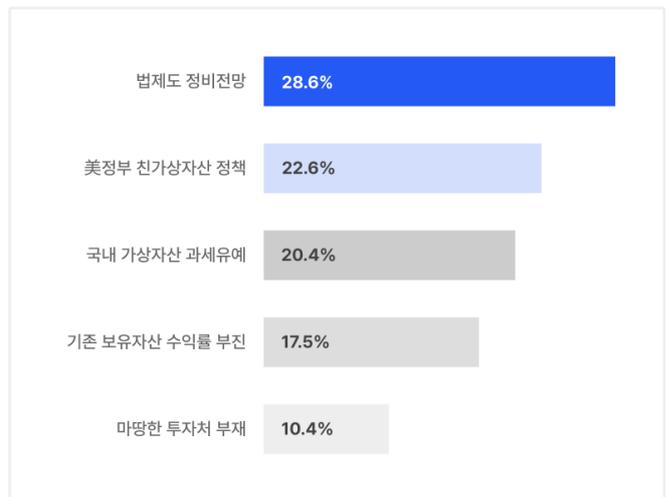
조사 기간: 2025. 5. 19 ~ 5. 20

배경: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호하는 원인과 향후 투자계획, 정책 우선과제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 도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이유



Source: 대한상공회의소, 2025

KEY FACTOR 2: Strategic Capabilities

2.1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프레임워크 벤치마킹³

2024년 1월, 미국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준 중 핵심 요소는 포괄적 감시체계, 엄격한 운영 기준,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의 고유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전통 증권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 규제를 수립 중이므로, 미국의 핵심 승인 기준을 벤치마킹하되, 국내 고유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감시체계와 국제 규제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규제 프레임워크

미국 SEC 승인 기준의 핵심 요소

미국 SEC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건으로 기존 ETF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승인 조건은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감시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운영 및 커스터디 기준 준수, 그리고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및 지수 관리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의 고유한 특성과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전통적인 증권 규제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감시 요구사항: SEC는 "사기 및 조작 행위와 관행을 방지"하고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포괄적 감시공유협정(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을 통해 거래소가 ETF 발행사 및 규제당국과 실시간 거래 데이터, 주문 정보, 시장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 진행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영 기준: 2025년 7월 "Crypto Asset Exchange-Traded Products" 규정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영 기준 명문화, 커스터디 보안 관련 개인키 보관 정책과 자산 분리보관 의무를 규정했으며, NAV 산출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 공시 의무화 진행
- 정보공개 및 투명성 요구사항: SEC는 지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각 구성 거래소의 식별과 시장점유율 및 거래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지수 구성 거래소 선정 방법과 산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감독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또한 규정화 요구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시사점

국내 시장 구조의 특성

미국과 다르게 국내는 업비트와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시장 쏠림은 소수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나 조작 행위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미국보다 더욱 강화된 감시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리테일 중심 구조로 미국의 기관 선행형 시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100% 현물거래만 허용되어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Hedge)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유동성 공급자들의 리스크 관리에 제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글로벌 가격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

³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rypto Asset Exchange-Traded Products, 2025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tatement on the Approval of Spot Bitcoin Exchange-Traded Products, 2024

Sullivan & Cromwell Legal Review, SEC Issues Guidance on Crypto Asset Exchange-Traded Products, 2024

Coinbase, Monthly Outlook: Why an ETF Matters, 2024

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지수 구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규제 설계 방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만, SEC 수준의 상세한 운영 기준과 감시체계는 별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수 거래소 독점 구조에서 CME CF Bitcoin Reference Rate 등 글로벌 기준가격을 활용한 교차 검증 체계와 실시간 가격 괴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과 절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포괄적 감시공유협정과 유사한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 해외 규제당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2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준비도 및 역량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긍정적이나, 법적·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국내 ETF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기관투자자 유입 기회를 활용하되, 금융안정성 위험과 세제 정비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 도입의 핵심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기반과 잠재 기회

강력한 시장 기반과 운용 역량

한국은 대규모 가상자산 시장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1,345 조원 규모입니다. 또한, 국내 ETF 발행사들은 약 170 조원 규모의 ETF 시장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설계 역량과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혼합하거나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배당 수익 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국내 ETF는 과세 신고가 용이하고 국내 장 시간에 맞춰 거래되어 투자자 접근성이 높습니다.

정책 환경과 법제화 진전

현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에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규모가 1,300 억달러(약 180 조원)에 달하고 홍콩, 영국 등 주요국이 연이어 승인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⁴ Coinbase, Institutional Monthly Review, 2024

증권거래소, 주식시장 주요통계: 거래종합정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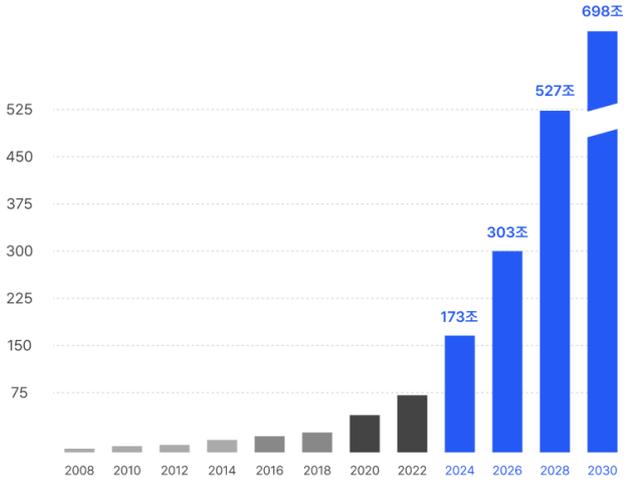
Yahoo Finance, BlackRock's Bitcoin ETF Application Takes Surveillance to the Next Level, 2023

자본시장연구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움직임, 2023

Xangle, 한국 가상자산 시장 리포트: ①거래소, 2022

국내 BTC 현물 ETF 출시 시 시장 규모 전망

국내 ETF 시장 규모 ¹⁾



1) 국내 ETF 시장 2020- 2024 CAGR(32.31%) 적용

2) 국내 ETF 시장 CAGR(32.31%) 기반의 미국 BTC 선물 ETF 시장 점유율 및 Wavebridge 성장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 국내 S&P500 상품 AUM (시장점유율 6%) 적용

'30년 BTC 현물 ETF 출시 시 예상 시장 규모 ²⁾

	Slow adoption	Base scenario	Accelerated adoption
2030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 (원)	~11조	~31조	~63조
시장 수요	일반 또는 법인만 참여 가능	일반 또는 법인 참여는 가능하나 기관 참여의 제약이 있는 경우	모든 시장참여자가 참여 (연기금, 재단 등)
규제	해의 ETF 상품에 대한 추가 제재 발생	현황 유지	추가적인 제재 혜택 발생
NAV	지속적인 2% 이상 괴리를 발생	특수한 상황 제외 연간 괴리를 2% 미만 유지	괴리를 1% 미만 유지
BTC 변동성	변동성 확대	점진적인 변동성 감소	금 또는 국제 수준의 변동성

Source: KRX, Wavebridge, 2025

기관급 서비스 시장 창출 기회

대규모 비트코인 커스터디 수요 증가는 국내 금융기관과 IT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내 VASP 중 커스터디 업체들은 개인보다 기관 대상 보관 서비스를 주요 매출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한 커스터디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준비 중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국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창설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현물 거래만 허용되고 있지만, ETF 운영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 영역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형 차별화 모델 구축 필요성

BlackRock 과 Fidelity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 모델을 분석하되, 한국 고유의 리테일 중심 시장 특성에 최적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투자자 기반의 높은 시장 참여율, 원화 기반 투자를 통한 환율 리스크 제거 및 국내 거래 시간대에 최적화된 유동성 공급 등은 글로벌 모델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경쟁 우위입니다.

기관 선행형 시장과 달리 한국은 이미 검증된 리테일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직접 보유 대신 ETF 를 통한 간접 투자로의 수요 전환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는 거래소 해킹 리스크 제거, 금융감독원의 체계적 감독, 세무 처리의 간소화, 기존 증권계좌를 통한 편의성 등 직접 보유 대비 명확한 장점을 제공하여 기존 970 만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3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벤치마킹

한국은 미국과 EU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핵심 성공요소는 검증된 준비자산 관리 체계, 발행부터 결제까지의 통합 운영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시장에 적합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분석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 준비자산의 100% 보유, 즉시 상환, 투명한 운영이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스테이블코인 주요 발행국에서는 준비자산을 단기 국채와 은행 예금으로 제한하고, 월별 증명과 분기별 감사를 의무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중앙은행이 직접 감독하는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준비자산 보관	상환 시간	이자 지급	감독 기준	규제 체계
GENIU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자산을 안전자산(국채, 은행예금)으로 제한 월별 증명보고서 및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대규모 발행사에 대한 중앙 감독 체계 	장소 제한 없음	24시간 내	발생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킹을 통한 간접적 보상 외)	100억 달러	연방-주 이중 체계
M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사 파산 시 고객자산 보호 장치 	30%는 EU 역내 은행 보관 의무	즉시 (지연 없이)	전면 금지	10억 유로	단일 체계

Source: Wavebridge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2022년, 미국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하고 규제 필요성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2025년 7월, GENIUS Act(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제정으로 연방 차원의 규제체계를 확립했으며, 규제의 핵심 요소는 준비자산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및 중앙화된 감독 체계입니다.

- 준비자산의 안전성 확보(준비자산 구성 제한): 시장 변동성에도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현금, 미국 국채 및 연방준비은행 예치금으로만 구성하도록 제한
- 이용자 보호(24 시간 내 상환 의무): 은행 예금과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장하여 고객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자산으로만 구성 제한 (e.g., USD, Federal Reserve Notes, T-Bill 및 Repo 등)
- 중앙화된 감독 체계(관리감독):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100억 달러 초과 시 주정부가 아닌 연방 통화감독청(OCC)이 직접 감독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기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GENIUS Act 제정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Circle은 2018년부터 매월 Deloitte의 준비자산 증명보고서를 공개하였고, Paxos는 KPMG의 월간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신뢰 확보와 향후 규제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은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EU MiCA 규제 프레임워크

2024년 12월, EU는 유로화의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MiCA(Markets in Crypto-Asset)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 E-Money Token)과 자산참조토큰(ART, Asset-Referenced Token)으로 구분하였습니다. EMT는 단일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되는 토큰이며, ART는 여러 자산(통화 바스켓, 금, 부동산 등)에 연동되는 토큰입니다. 핵심은 준비 자산 보유 의무, 기존 은행 예금 보호를 위한 이자 지급 전면 금지 및 시스템 예방을 위한 중앙 감독 체계입니다.

- 준비자산 30% 의무 예치: EU는 관할 금융기관에 준비자산을 예치함으로써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EMT 발행사는 준비자산의 최소 30%를 EU 내 규제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 미국이 준비자산 종류만 제한하는 것과 달리, 보관 장소까지 규제로 지정
- 이자 지급 전면 금지: MiCA는 기존의 전통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법정화폐(유로화)의 예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EMT 발행 및 유통 시 이자 지급 전면 금지 시행
- 대규모 발행사 중앙 감독: 스테이블코인이 대량으로 발행 시 유로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 일일 거래량 2억 유로 또는 총 발행량 10억 유로 초과 시 중요 EMT로 분류되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직접 감독 및 모니터링 진행

2.4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량 진단⁵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후발주자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선진 모델의 벤치마킹과 국내 고유 강점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성공 요건

강력한 시장 기반과 잠재 기회

한국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이상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간편결제 시장 수요 기반(카카오페이 4,000만명, 네이버페이 3,100만명, 토스 3,000만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시장 침투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970만명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보유자와 일평균 7.3조원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규모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검증된 잠재 수요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가맹점 0.4~1.5%인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상당한 비용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D+2~3일 소요되는 정산 시간의 실시간 단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기존 송금업체들이 부과하는 1-3% 수수료 구조에서 블록체인 기반 저비용 구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⁵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수수료율, 2025
금융위원회,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4

정책 환경과 경쟁 상황의 전략적 활용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점차 명확해지며 새로운 시장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포괄적 규제안과 한국은행의 신중한 접근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GENIUS Act, EU의 MiCA와 같은 선진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초기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일관된 규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제도화와 서비스 운영은 한국 입장에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책적 학습과 시장 경험 축적이라는 레퍼런스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리테일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수 맞춤형 차별화 전략

한국은 활발한 원화 가상자산 거래 시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Tether 또는 Circle의 검증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초기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시장 특성에 차별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USDT/USDC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국내 특화 결제·송금 시장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독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적 역량 구축 과제

글로벌 표준 인프라 구축이 핵심 성공 요소입니다. SOC 1/2 Type II 인증, 대규모 보험 및 외부 회계법인 증명보고서 등은 이미 검증된 프레임워크로서 국내 금융기관, IT기업 및 VASP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발행사 역량 측면에서는 자본금 50억원 규제 도입 시 다수의 시중은행과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어 건전한 경쟁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Circle의 핵심 성공 요소인 규제 친화적 접근, 투명한 준비금 운용, 전통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국내 금융 생태계의 기존 역량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CASE STUDY: CIRCLE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전략

Circle Internet Group은 2013년 비트코인 기반 결제 앱으로 시작하여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성장했으며, 이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실용적인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합니다. 핵심 성공 요소는 규제 당국과의 선제적 협력, 전통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투명한 준비금 운용입니다.

- 결제 서비스 기반 구축 (2013-17년): Circle은 설립 초기부터 규제 친화적 접근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2015년 골드만삭스 투자 유치와 뉴욕주 최초 BitLicense 획득을 통해 기존 금융권과의 파트너십 및 규제 준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전환 (2018-20년): 2018년 Coinbase와 함께 CENTRE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SDC를 발행하면서 B2C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사업 모델을 전환했습니다. USDC 유통량은 2020년 초 약 5억 달러에서 DeFi 시장 확장에 힘입어 수백억 달러로 급성장했습니다.
- 금융 인프라 제공업체로 확장 (2021년-현재): Circle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제공 업체로 진화했습니다. 투명성 및 규제친화적 행보를 통해 전통 금융기관의 USDC 도입을 촉진하고, Circle Payment Network(CPN)를 출범시켜 송금·결제 인프라 개선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USDC 운영 생태계: 기능별 참여 구조

USDC의 운영은 발행부터 실제 활용까지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분되며, 각 기능별로 전문화된 참여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Circle이 USDC의 독점적 발행·소각 권한을 보유하며, USD 입금 시 1:1 비율로 USDC를 발행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량의 투명성(PoR, Proof of Reserve) 확보합니다.
- 준비자산 관리: BlackRock이 Circle Reserve Fund 운용을 담당하며 미국 단기 국채 중심 포트폴리오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수탁은행들은 준비자산을 Circle 자산과 안전 분리 보관하며, Grant Thornton의 월간 증명보고서로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유통 및 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USDC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Circle Mint는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발행·상환을 직접 담당하여 기관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안정적 유동성 공급 요구를 충족합니다.
- 실제 사례: USDC 기반 결제·국제송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시스템 대비 빠른 정산과 낮은 수수료 경쟁우위 확보합니다.

Circle 주요 서비스 체계

사업 영역	서비스/상품	서비스 영역
결제 네트워크	Circle Payments Network (CPN)	글로벌 은행, 핀테크 및 VASP를 연결해 USDC/EURC 등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실시간 결제 및 정산 지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USDC, EURC	Circle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다양한 메이저 블록체인에서 결제 및 금융서비스에 사용
고객 지갑 관리	Circle Wallet	결제용 가상자산 지갑을 통합하는 API 서비스로 B2C, B2B 자산 관리 및 결제 지원
크로스체인 전송	Circle CCTP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Cross-Chain Transfer Protocol)
인프라 블록체인	Circle Arc	결제, 외환 및 자본시장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가스비 지원 솔루션	Circle Paymaster	USDC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
개발용 스마트컨트랙트 템플릿	Circle Contracts	스마트컨트랙트 템플릿과 모듈 제공
규제/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Engine	AML/KYC 등 규제 대응 프레임워크 제공

Source: Circle, 2025

KEY FACTOR 3: Regulatory Clarity

3.1 가상자산사업자(이하 VASP) 관련 규제 및 절차⁶

한국의 VASP 신고 제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현재 27개 업체가 5종류 신고 업무 복수 신청(조합)을 통해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금융위원회의 법인 거래 단계적 허용 정책 시행에 따라 2026년까지 모든 법인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 구분 및 조합			
사업 영역	필수 서비스 영역	사업 영역	필수 서비스 영역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실명계좌 연동)	[가] 가상자산 매도-매수 [다,라]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 [마] 가,나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프라임 브로커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다,라]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 [마] 가,나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실명계좌 미보유)	[다,라]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 [마] 가,나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커스터디	[다,라]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

Source: Wavebridge, 금융정보분석원, 2025

VASP 법제화 현황

신고·수리 제도

2021년 3월 25일, 한국의 VASP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과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핵심 목적으로 하며, 모든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전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및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5가지 업무 유형의 조합적 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선별적으로 조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단일한 거래소 모델을 넘어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합적 접근을 통해 현재 27개 업체가 VASP 신고 수리되어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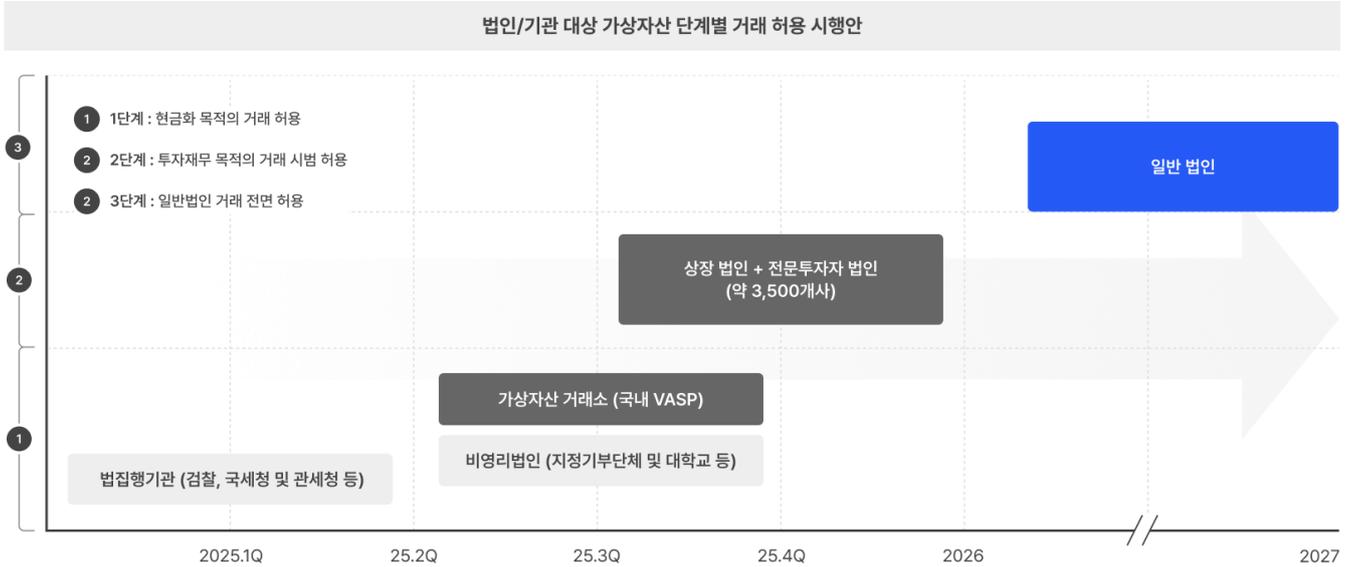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법은 VASP의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했으며, 고객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금융당국의 VASP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VASP는 이용자에게 투자위험 고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⁶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 「가상자산사업자 매도 가이드라인」, 2025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2025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1

금융감독원은 VASP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VASP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VASP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시설, 인력 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단계별 거래 허용 현황

20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2017년부터 유지해온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과거 비영리법인과 대학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도만 가능하며,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어, 상장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3.2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규제 현황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의 제약과 신탁업자 수탁 한계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의무를 VASP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법적 제약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가상자산 지수 개발과 파생상품형 ETF 출시 등 추가적인 상품 다양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제약

자본시장법의 구조적 한계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및 신용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4년 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국내 증권사의 해당 상품 중개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 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초자산 인정 시 기대되는 변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장벽이 해결됩니다. 현재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개발과 출시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 지수 개발 가능: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공표, 공정한 가격 형성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지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95% 이상을 독점하는 구조상 CME CF Bitcoin Reference Rate 등 글로벌 표준 지수 활용을 통한 리스크 분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 현재 100% 현물거래만 허용된 상황에서 기초자산 인정 시 비트코인 선물 ETF, 인버스 ETF 및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파생상품형 ETF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 제약사항

현행 신탁재산 제한의 구조적 문제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탁업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운영에 있어 근본적 제약이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물 비트코인 보관이 필수이나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없다면 해당 상품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자산 분리 보관이라는 신탁 제도의 핵심 기능을 가상자산 영역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업무 위탁을 통한 하이브리드 모델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신탁가능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과 동시에,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VASP에게 위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탁업자는 VASP의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적절한 관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 사실 발견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위반상태 해소 또는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신탁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가상자산 전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도화됩니다. 이를 통해 신탁업자가 직접 가상자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전문 VASP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자본시장법 기준 주요 쟁점

현행	법률 발의안
<p>자본시장법 (법률 제20531호, 25.04.23 시행)</p>	<p>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25.06.27 발의)</p>
<p>제4조(증권) ㉠ ~ ㉡ (생략)</p> <p>㉡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신 설></p> <p>5. (생략)</p>	<p>제4조(증권) ㉠ ~ ㉡ (생략)</p> <p>㉡-----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p> <p>㉠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p> <p>1. ~ 7. (생략)</p> <p><신 설></p> <p>㉡ ~ ㉢ (생략)</p> <p><신 설></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9. (생략)</p> <p><신 설></p>	<p>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p> <p>㉠-----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42조제10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p> <p>㉡ ~ ㉢ (현행과 같음)</p> <p>제109조의2(신탁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특례) ㉠신탁업자는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한 신탁재산인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신탁계약의 위탁자(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p> <p>신탁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p> <p>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의 결과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p> <p>㉢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위탁계약에 대하여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p> <p>㉤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6조의2(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제166조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할 수 있다.</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9. (생략)</p> <p><신 설></p>	<p>제446조(벌칙) ----- -----</p> <p>1. ~ 19. (현행과 같음)</p> <p>19의2. 제10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p> <p>19의3. 제10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신탁업자</p> <p>19의4. 제10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p> <p>19의5. ~ 19의11. (현행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와 같음)</p> <p>20. ~ 64. (현행과 같음)</p>

Source: 국회(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 2025

3.3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현황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국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과 금융당국 간 정책 조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분리, 자본금 50 억원 및 100% 준비자산 보유 등 핵심 규제 틀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정책적 우려 및 금융위원회의 시장 육성 방향 조율 등 향후 규제 확정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입법 추진 현황

국회 발의안 주요 내용

현재 국회에는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행기관의 최소 자본금 요건: 당초 5 억원에서 50 억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발행과 유통은 명확히 분리되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담보에 집중하고, 유통은 별도 VASP 가 담당
- 엄격한 준비자산 관리: 발행사와 거래 사업자 모두 엄격한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준수를 바탕으로 준비자산 구성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1년 이하 국채 및 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구성 조건
- 당국 간 정보 공유 체계: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이 필요 시 발행사의 거래 내역과 준비자산 현황을 직접 확인 가능

입법화를 위한 주요 쟁점

시장육성과 금융안정의 정책 방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인 쟁점은 금융위원회의 시장 육성 지향적 접근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성 중심 접근 간의 정책 방향 차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시장 확장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활성화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새로운 핀테크 혁신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에 미칠 영향을 핵심 우려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될 경우 기존 은행 예금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화 흐름이 형성되어 금리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자본 유출입 관리의 복잡성 증가와 금융안정성 리스크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진행과 연계된 고려사항

2021년부터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CBDC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젝트 한강”을 잠정 중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두 가지 디지털 원화가 공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되 중앙은행이 간접 감독하는 구조여서 통화 주권과 금융정책 효과성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과제

정책 방향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 간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당국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합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주요 리스크인 거래량 급변, 준비자산 운용 현황 또는 대량 상환 요구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조화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미국에서 GENIUS Act가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및 시행될 예정이고, EU에서 MiCA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도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의 대규모 리테일 중심 가상자산 시장과 높은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시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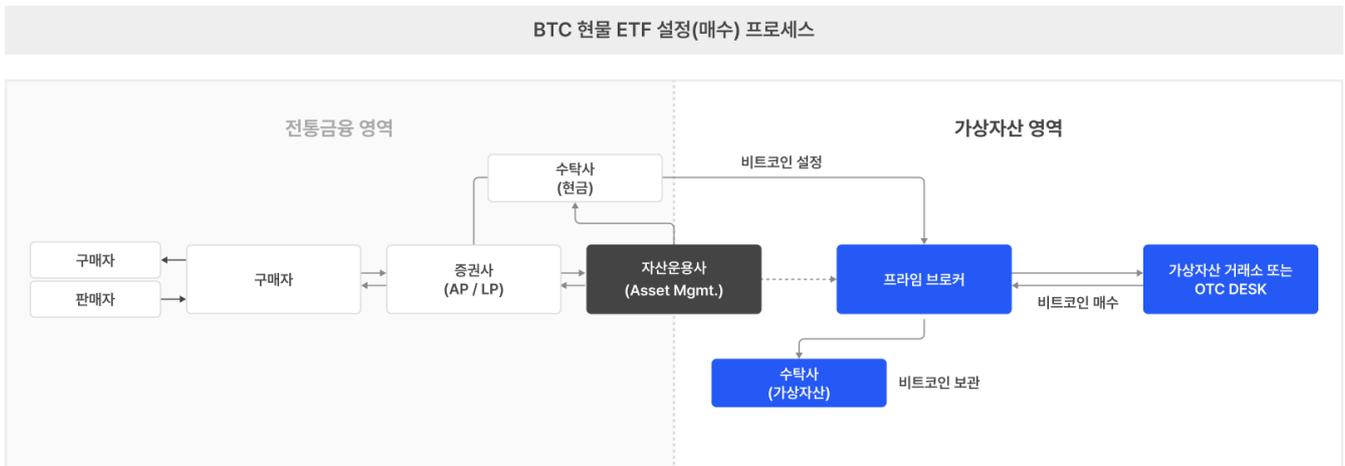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방안 (VASP 취득 vs.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 후 시장 반응과 사업 성과를 검증한 뒤, 필요에 따라 독립적 VASP 취득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전략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의 현실적 제약: 신규 VASP 신고는 독립적 사업 운영, 포괄적인 서비스 통제 및 고유 브랜드 구축이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국내 VASP 수리를 위한 조건이 세부적이며, 법인 설립 후 실질적인 신고 수리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내 인력 및 경영진 구성, 한국 규제에 맞는 별도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를 위한 은행의 복잡한 승인 절차와 AML/CFT 위험 평가 등이 주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은 런웨이 2년 기준 약 50억원 이상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파트너십 중심 전략의 필요성: 기존 VASP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즉시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검증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규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인한 양사간 협의 조건 해결이 필요하지만, 신규 VASP 취득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사업 참여 시 VASP 역할



Source: Wavebridge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통 금융 인프라와 가상자산 인프라 간의 완벽한 통합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전통금융의 ETF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기 위한 ETF 발행사(자산운용사), AP/LP(증권사), 거래소(한국거래소), 신탁사(주요 은행) 등 기존 ETF 상품 운영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VASP의 핵심 역할(ETF 설정/환매 과정에서의 실물 비트코인 매수 및 매도, 대규모 비트코인 커스터디 보관 및 보안 관리, 기관급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규제적 업무 정의 및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설정/환매(Creation/Redemption) 프로세스: 해당 프로세스 참여자는 매수와 매도 행위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매도·매수 행위」에 대한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는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본래 시장 개설과 지수 제공을 주된 역할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비트코인 현물의 설정·환매를 수행하도록 맡길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와는 별도로 프라이م 브로커와 같은 독립된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가상자산 매도·매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신고 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국내 VASPs: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이م 브로커
 - *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규제로 인해, 유동성 공급 또는 관리 서비스도 필요할 수 있음

비트코인 커스터디 프로세스: VASP는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과 이동 통제, 그리고 자산 실사 및 투명성 강화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ETF 발행사는 신뢰도 높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는 멀티시그 지갑, 콜드월렛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물 비트코인의 오프라인/온라인 상 보안관리를 전담합니다. 자산 입·출고 및 보유 현황은 실시간 보고 체계와 연동되어 각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되며, 외부 감사를 통한 준법성 강화도 병행됩니다.

- 관련 국내 VASPs: 커스터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사업 참여 시 VASP 역할



Source: Wavebridge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유통을 위해서는 발행-유통-결제 밸류체인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JV 형태의 발행사와 가상자산 유통업자로 구분된 이원화 구조가 예상됩니다. VASP는 발행사 내 기술 솔루션 및 대량/소매 유통 등 핵심 프로세스에서 고객과 발행사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소각(Mint/Burn) 프로세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소각(Mint/Burn) 프로세스에서 VASP는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간 교환의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행 단계에서는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프라이م 브로커가 발행사와 연동하여 1:1 비율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고객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반대로 소각 단계에서는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반환하면 프라이م 브로커가 이를 회수하고 발행사의 준비자산에서 원화를 출금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스터디 사업자는 발행·소각된 스테이블코인 및 준비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실시간 API 연동을 통해 발행사의 준비자산 현황과 유통량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내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합작법인(JV) 형태의 발행사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프라이م 브로커가 발행과 소각의 실행을 담당하고, 커스터디 사업자가 자산 보관과 검증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관련 국내 VASPs: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거래 프로세스: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거래 프로세스에서 1차 유통업자는 발행사와 직접 연계하여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대량 매매 및 유동성 공급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라임 브로커나 기관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대형 거래소가 해당됩니다. 반면 2차 유통업자는 1차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 및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 거래와 24시간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역할과 대상이 구분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국내 VASPs: 프라임 브로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 리스트 정보 현황 (27개사, 25년 9월 기준)

No.	서비스명	법인명	주요 서비스	신고한 업무	신고수리증 교부일
1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실명계좌 보유)	가 ~ 마	2021.10.06.
2	코빗	주식회사 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원화실명계좌 보유)	가 ~ 마	2021.10.20.
3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실명계좌 보유)	가 ~ 마	2021.11.25.
4	빗썸	주식회사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실명계좌 보유)	가 ~ 마	2021.12.02.
5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다 ~ 마	2021.12.01.
6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실명계좌 보유)	가 ~ 마	2021.12.09.
7	BTX	차일드리 주식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가 ~ 마	2021.12.09.
8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가상자산 거래소	다 ~ 마	2021.12.21.
9	코어닥스	(주)코어닥스	가상자산 거래소	가 ~ 마	2021.12.17.
10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가상자산 거래소	다 ~ 마	2021.12.23.
11	크립토닷컴(오케이비트)	주식회사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가상자산 거래소	가 ~ 마	2021.12.30.
12	빗크론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가상자산 거래소	다 ~ 마	2021.12.30.
13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가상자산 거래소	다 ~ 마	2021.12.30.
14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가상자산 거래소	가 ~ 마	2021.12.30.
15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1.12.17.
16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1.12.17.
17	오하이월렛	(주)핵슬란트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1.12.30.
18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기타	가 ~ 다	2022.01.07.
19	오아시스거래소	(주)가디언홀딩스	가상자산 거래소	가 ~ 마	2022.02.10.
20	카스텔라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2.06.27.
21	인피닛블록	주식회사 인피닛블록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3.08.07.
22	디에스알브이랩스	(주)디에스알브이랩스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4.09.25.
23	비덱스	비덱스 주식회사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4.09.25.
24	INEX(인엑스)	(주)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다 ~ 마	2024.10.15.
25	돌핀(Dolphin)	(주)웨이브릿지	프라이임 브로커	나 ~ 마	2024.12.18.
26	바우맨	(주)해피블록	프라이임 브로커	나 ~ 마	2025.01.17.
27	로빗	(주)블로세이프	커스터디 서비스	다, 라	2025.08.29.

Source: 금융정보분석원, 2025

가. 가상자산 매도-매수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다. 가상자산을 이전

라.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마.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MEMO

Contacts

Jay Lee | 이지훈

COO

E. jay.lee@wavebridge.com

Peter Chung | 정승환

Head of Business

E. peter.chung@wavebridge.com

Authors

Frederick Kim | 김덕영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E. frederick.kim@wavebridge.com

Lina Eom | 엄선영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E. lina.eom@wavebridge.com

Designed by **Rei Kim** | 김성수

Disclaimer

본 문서는 주식회사 웨이브릿지와 FACTBLOCK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출처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그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 가정, 예상 실적 등 미래예측적 진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시장 상황이나 규제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수신자의 고유한 책임이며, 당사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공익적 정보 공유 및 산업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로, 법률·세무·회계·재무 또는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단과 의사결정은 반드시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수신자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문서는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 자유로운 인용과 배포가 허용되며, 무단 변형·왜곡 또는 상업적 판매·재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본 문서를 수령·열람·보관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 문서 및 그 사본 일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